

김승연-방산, 정기선-조선 말아... '트럼프 리스크' 넘는다

〈한화그룹 회장〉

〈HD현대 수석부회장〉

산업계, 트럼프 2기 대응 속도

김승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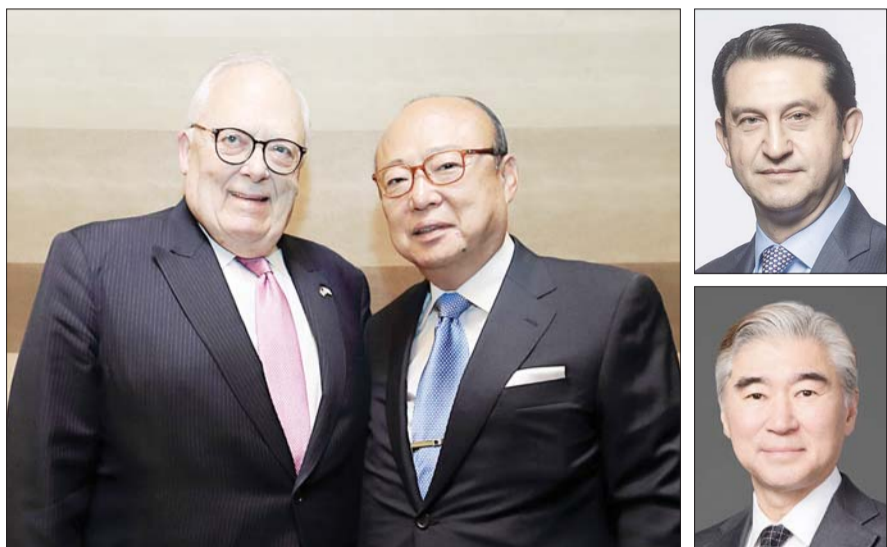
HD현대 수석부회장에 정기선 승진
핵심과제 챙기고 조선업 집중할 듯
현대차, 美 관료출신 CEO 영입하고
GM과 업무협약 체결 '선제적 대응'

국내 산업계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연말 인사를 통해 그룹 오너일가가 전면에서 나서거나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최근 그룹 방산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목한 해양 방산을 포함해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방산사업을 그룹 총수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5월 9일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회장을 만나 한미간 경제교류 및 한반도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그룹

주변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만큼 그의 인적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경제계 내 대표적인 '친(親) 트럼프' 인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받았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김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멘토인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4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회장직을 맡은 계열사는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

스,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 등 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HD현대도 트럼프 2기의 대표 수혜 업종으로 조선업이 급부상한 가운데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정기선 부회장이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힘을 실기 위함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조선업에 손길 내민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보다 한 달 여 빠르게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글로벌' 시장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그룹의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미국 관료 출신을 전격 영입했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로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 역본부장을 선임했다. 창사 이래 첫 외국인 CEO이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 게 선임 배경이다.

또 현대차는 성 김 고문역을 대외협력·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홍보·PR 등을 총괄하는 그룹 싱크탱크 사장으로 임명했다. 성 김 선임 사장은 동아시아·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전문가로, 주한 미국 대사,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등을 역임했다. 성 김 선임 사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주요 관료였기 때문에 2기 행정부와 소통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 9월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는 향후 GM과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및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 GM과의 협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기업들은 연말 인사에서 큰 폭의 변화를 통한 인력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11월 말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수 세대 교체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LG그룹은 이르면 이번주 연말 인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올해도 '안정 속 혁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경험 많은 CEO는 유지하고, 미래 리더를 주요 계열사 요직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글로벌 차원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거나 기회를 극대화해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尹 "韓, 아태지역 더 긴밀하게 연결할 것"

APEC 경주 정상회의 의사봉 인계
美·日·中 정상회담 등 페루 일정 마쳐
브라질 이동, 이틀간 G20 정상회의

페루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16일(현지시간) '마추픽추 선언문'과 '이시마 성명'을 발표하며 끝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기 APEC을 주최하는 의장국이 돼 내년도 정상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계기로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을 만나 안보·경제에 대해 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1차 APEC 정상회의의 세션2 종료후 의장국 인계식에서 "한국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페루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옥(varayok)을 건네받고 차기 APEC 의장직을 인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 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되는 현재, 보호무역 기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시마(Ichima) 성명'도 내놨다. 이시마는 페루 과거 리마 수도권 지역에 자리잡았던 문명의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비롯해 캐나다,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각각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3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선 15일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 강화를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서예진 기자 syj@

최태원, APEC CEO 서밋 의장 됐다

내년 10월 경주서 개최
"민간 기술·지혜 연결 가교 역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서밋'에서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

최 회장은 "민간의 기술과 지혜가 서로 다른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Bridge)가 되고, 기업(Business)이 혁신을 주도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Beyond)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2025년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AP EC 기업인사자문위원회(ABAC)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의사봉 인수 후 이어진 인사말에서 "내년 APEC CEO서밋의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b·b·b)"라며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CEO 서밋의 프레임워크 안에 21개국 경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과제, 기술 어젠다, 혁신목표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 APEC CEO 서밋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1인가구 월소득 315만원, 생활비 127만원

>> 1면 '세 집 중 한 집...서 계속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혼밥을 할 때는 직접 밥을 해서 먹는다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음식배달과 인스턴트·밀키트가 각각 31.6%, 23.3%를 차지했다. 1인가구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아파트 30.7%, 오피스텔 22.2% 순이었다. 지난 2022년 당시에는 아파트가 36.2%로 가장 많았지만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역전했고, 오피스텔 비율도 늘었다.

1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원이며,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40.8%, 128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로 지난 2022년 대비 2.1%p 높아졌다. 소득에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 금액을 지출하고, 30.3%는 저축한 후 남은 여유자금은 16.2% 수준이었다.

1인가구는 '자가' 거주자가 21.8%, '전세' 거주자가 30.0%, '월세' 거주자가 45.1%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월세' 비중은 8.9%p 증가한 반면 '자가'(-6.2%p)와 '전세'(-2.1%p) 비중은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

삼바에피스, 오보덴스 등 2종 유럽허가 권고

연간 8조 시장... 공식판매 허가 기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 바이오시밀러 2종의 유럽 허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글로벌 매출액은 연간 8조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

MP)로부터 프롤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와 '엑스브릭'의 품목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프롤리아와 엑스지바는 암젠(Amgen)이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주성분인 '테노수맙'의 용량과 투약 주기를 달리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와 골

전이 환자 등의 골격계 증상(SRE) 예방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 두 제품으로 승인 받았으며, 지난해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8조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응증 별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와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엑스브릭'의 두 제품으로 각각 유럽에서 허가 권고를 받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